

## 한·이탈리아, 공공조달 AI 혁신 손잡다

〈AI·디지털 조달 협력 본격화... 19년 파트너십 새 장 열어〉

- 양국의 우호적 관계 속에 2008년 첫 체결 이후 6번째 양해각서(MOU) 갱신
- 전자조달·혁신조달·녹색조달 협력 확대... AI, 데이터 연계·고도화 등 디지털 협력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일 이탈리아 연방조달공사(Consignor)의 마르코 레지아니 사장과 공공조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온라인으로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조달청과 이탈리아 연방조달공사는 2009년부터 세계 중앙조달기관 협의체 MMGP (Multilateral Meeting on Government Procurement)를 주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08년 MOU 체결 이후 다섯 차례의 갱신을 통해 공공조달 선진화를 위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MOU 갱신은 지난해 개최된 MMGP에서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에 매료된 이탈리아 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AI 전환기의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과 협력관계 강화가 목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AI 기반 디지털 조달 혁신 사례와 새로운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상호 교류하고, 혁신조달·녹색조달 분야의 우수 사례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협력 성과는 양자·다자 워크숍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글로벌 공공조달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이탈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제안으로 양 기관 대표가 직접 만나 거시적 협력 방향 외에도 조달기업·전문인력 교류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MOU 갱신은 이탈리아와 한국이 지난 19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맞아 양국 공공조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공공조달의 AI 전환을 포함한 전자조달·혁신조달·녹색조달 분야의 우수사례를 함께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눔으로써 글로벌 공공조달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신봉기	(042-724-7470)

